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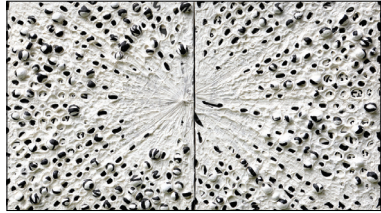
한지에 담아낸 마음의 풍경

제24회 전주한지조형작가협회 정기전 '내적풍경: Hanji' 개최

JJHA 전주한지조형작가협회(회장 송미령)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제24회 전주한지조형작가협회 정기전 '내적풍경: Hanji'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지를 매개로 활동하는 협회 소속 4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정기전으로, 각자의 시선과 예술적 해석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송미령 회장



오강숙 작가 '한글융합'



유경희 작가 '하월(夏月)'

삶의 흔적, 그리고 한지에 담긴 감성과 사유를 보다 깊이 있게 풀어내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2026년 말 한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앞둔 시기에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한지가 지닌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동시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통해 한지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회장(예원예술대학교 교수)은 "한지는 오랜 시간 우리 문화와 함께해 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작품 속에 담긴 다양한 내적 풍경을 만나고, 한지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적 풍경: Hanji' 전시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주한옥마을 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개최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김미진, 김민지, 김순화, 김승연, 김영숙, 김예를, 김안순, 김윤덕, 김이재, 김현지, 김희자, 박금숙, 소 빈, 소진영, 송미령, 송수미, 송승효, 신미금, 신재영, 안현성, 오강숙, 오석심, 유경희, 유병희, 유시라, 유희애, 이정형, 이세령, 이유라, 정유리, 정은경, 정은희, 조호익, 이정민, 차종순, 최계영, 최지영, 최진희, 한병우, 한지순 등이다. /김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1부 '굿패와 강패' (4)

박명희의 별 강남준의 별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상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여그 것도 맛있게 한번 드셔보셔요."
"근데 짬짜면은 광주가 원조예요? 아니면 여그 고창이 원조예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취재를 하러 왔나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지? 이런 생각보다는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자꾸 말을 시키니 나이가 오십이 넘은 동식이지만 기분은 좋다.
"궁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디가 원조인 위디가 원조였어?"
옆에 앉은 파머머리 여자가 답을 못 내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동식을 대신에 나섰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파머머리에게 돌렸다.
"한번 생각을 해봐. 광주 주변에 수많은 도시들이랑 군들이 있는데, 왜 하필 여그 고창에서 유명한 짬짜면이 그거서도 유명하냐 그 말이야. 광주가 원조라고 하면 여그 깃은 광주 깃을 따라서 만든 것인데, 왜 다른 도시나 군은 광주를 따라서 안 만들었을까이."
젊은 여자는 눈을 굴리며 파머머리의 말을 이해하려 했다.
"반대로 생각해보. 여그가 원조인데 더 큰 도시인 광주로 옮겨 갔으니까, 다른 도시나 군에서는 짬짜면이 없네 없네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광주는 도시가 여그보다는 훨씬 크니까 사람들에게 짬짜면이 더 알려졌으니까. 광주가 원조다 뭐다 하는 말이 나왔겠지. 안 글렀어?"
젊은 처자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밥 먹으러 와서 너무 머리덜 쓰지 마여. 배만 더 고프니까. 아, 여그 사장님이 옛날에는 고창에서 알아주는 건달이였는데, 지금은 고창에서 제일로 알아주는 중국집 요리사라니까. 후딱 먹어봐. 기차게 맛있으니까. 호호호."
그때 일련의 농악패들이 악기 없는 빈손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장구재비 형님, 우리 왔어요."
"아이고 어서들 와. 열심히는 나도 참석을 해야 하는데 손님이 끊어질 안네 그려. 허허허. 미안해."
동식은 농악패들을 맞이하며 사람중게 웃었다.
"궁게 말이요. 어쨌든 장구재비 형님이 와서 손을 맞춰봐야 오늘 저녁 공연을 허

니까. 초저녁에는 꼭 나와야 허요. 최종 리허설이니까요."
"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빠지면 우리 농악대는 양꼬 없는 짬짜 아니겠는가. 허허허. 그나저나 뭇들 먹을 편이여? 내가 오늘은 술 테니까 말들 허."
"아따 형님, 우리가 그렇라고 온 것은 아닙니다. 헤헤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형님의 최고 요리인 짬짜면이요. 양 궁가?"
사내는 농악패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한다.
"그럼요. 하하하....."
농악패들은 다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웃었다.
대보름날인 그날 저녁, 올해도 어김없이 오거리 당산제가 고침음성 광장과 중앙 당산에서 열렸다. 동식은 흰 바지저고리에 파란 조끼를 입고 드림을 두른 채 장구를 걸며 메고 궁글채와 열채를 휘두르며 힘차게 나아갔다.
"뎡 ~ 따릉따 ~ 뎡 ~ 따릉따 ~ 뎡 기 ~ 뎡 기 ~ 뎡 기 ~ 뎡 기 ~"
슬픔도 애환도 그리고 기쁨도 모두 담은 동식의 장구 소리는 광장을 덮었고 소리는 바람을 타고 고창 전역으로 퍼졌으며, 더 멀리 높이 날아가 하늘에 충돌 떠 있는 박명희의 별과 강남준의 별에도 당도했는데, 그 별들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동식의 장구 소리를 들으며 바라보고는 흐뭇하게 활짝 웃고 있었다. <끝>
**그동안 읽어주신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한루원에 피어난 연희꽃' 공연

남원 청아원서 20일 개최

남원시 국악공연장인 청아원과 지역 청년예술인 단체 (유)청연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청아원에서 전통연희와 퓨전국악이 어우러진 공연 '광한루원에 피어난 연희꽃'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202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아원 상주단체로 선정된 (유)청연의 올해 첫 번째 공연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김놀이 & 사물판타 △국악이 들려주는 남원 이야기 △박나눔이 & 죽방울놀이 △퓨전국악 밴드 공연 △사지놀이 & 용기놀이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국악이 들려주는 남원 이야기'는 남원의 대표 문화자원인 춘향전과 흥부전을 소재로 구성된 무대로,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공연예술 콘텐츠로 재해석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광한루원에 피어난 연희꽃은 전석 무료 공연으로, 온라인 예매처인 나투컬처를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K-국악스테이지 '길-울림의 몸짓, 호흡에 춤추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K-국악스테이지 '길-울림의 몸짓, 호흡에 춤추다'를 개최한다.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무용단 중심이 되어 주제에 맞춰 구성되었으며, 삼현의 북을 힘 있게 울리며 빠른 장단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펼치는 연고무로 문을 열고, 이어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호남검무, 흥타령 노랫가락 속 삶의 내면을 이끌어 내는 흥타령과 살풀이 춤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규장농월'은 장구의 현란한 가락과 흥겨운 춤사위로, '연흥무'는 꽃 그림 부채를 활용한 단아하고 우아한 춤사위를 보여주며 대신무는 오방색 깃대와 부채, 방울이 어우러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천을 살림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